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字日報 제10491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5년 12월 2일 화요일(음력 10월 13일)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 보전 '파장'

도의회 예결위, 도-중국 선사 3년 손실 보전 협약 도마
최대 228억원 보전… “지방재정 투자 심사 누락” 지적
도 “행안부·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검토” 계획 밝혀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과정에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누락해 절차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약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칭다오 화물선 노선 개설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의 적절성을 미리 검증해 시행 여부를 따져야 하는 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제주도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선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장래에 세출예산으로 잡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지자체가 특정시점에 모업체와 계약을 맺어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면 이는 당시 시점에는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재정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재무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중앙 정부에 의뢰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노선을 오갈 화물선 선사와 협약을 맺으며 선사 측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협정 기간은 3년으로 선사 측이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면 제주도는 최대 228억원을 보전해야 한다. 제주도는 협약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지출하기 위해 지난해 12

월 도의회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투자 심사는 받지 않았다.

이날 예산 심사 회의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투자 심사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질의에 “조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해운항만과는 더 나아가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입장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진 부지사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필요하다면 행안부와 투자 심사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해운항만과는 더 나아가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입장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특정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지원 규정이어서 투자 심사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 부지사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필요하다면 행안부와 투자 심사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해운항만과는 더 나아가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입장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에 제주~칭다오 항로를 통해 수출입하는 물동량이 순익분기점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손실보전금 지급 예산을 4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도의회 상임위는 이 중 15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정신건강예산’ 5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제주 2020년 40억→2022년 58억→2024년 90억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정신건강 예산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보건복지부의 ‘국가정신건강현황’에 따르면 제주의 정신건강 예산 규모는 2020년 40억 6300만원, 2021년 56억 원, 2022년 58억 5300만원, 2023년 83억 3800만원, 2024년 90억 8200만원으로 최근 5년 새 2.2배가량 성장했다. 정신건강예산은 치매, 중증정신질환, 조현병, 우울장애, 중독장애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주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중증정신질환 490명, 조현병·분열형·망상장애 322명 등으로 전체 865명이다. 연령별로는 15~19세 51명, 20~29세 120명, 30~39세 106명, 40~49세 150명, 50~59세 222명, 60~64세 104명, 60세 이상 112명 등이다. 백금탁기자

이에 제주인구 1인당 예산도 2020년 6062원에서 지난해 1만 3388원으로 7326원(120.9%) 늘었다. 이 기간에 1인당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전남이 1만 6490원으로 가장 많고 전국평균은 9145원이다.

지난해 제주의 지역사회 정신건

지역화폐 기능 ‘탐나는전 학생증’ 출시

도-제주대학교-제주은행
어제 기능통합형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가 학생증과 체크카드, 지역화폐 기능을 통합한 ‘탐나는전 학생증’을 출시했다.

제주도는 1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원형홀에서 제주대학교, 제주은행과 함께 ‘탐나는전 탐재 제주대학교 학생증 출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탐나는전 학생증’은 학생증과 체크카드, 지역화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으로, 학생들은 카드 하나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일반 가맹점에서 결제하며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탐나는전 학생증은 제주대 55대 총학생회 박주영 전 회장이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제

주도와 제주대, 제주은행은 이런 제안을 수용해 카드를 출시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주대는 학적 정보 확인과 교내 홍보를, 제주은행은 카드 개발과 시스템 운영을 각각 맡았다.

제주도는 제주대 재학생 8555명이 탐나는전 학생증을 사용하면 젊은 세대의 지역화폐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오영훈 지사는 “탐나는전 학생증은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사용률이 낮았던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일상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선언했다.

제주공항 1분 주정차 단속, 관광객들 ‘당황’… 4면 / 학교급식 ‘조리로봇’ 시연회… 5면

시민의 바람을 청하는 제주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제공서비스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간식 및 방학기간 중식
놀이와 휴식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료
월 10만 원 이내
(센터별 상이 / 문의 필요)

신청방법
각 센터
전화 문의 및 방문상담

운영시간
학기중: 13:00~20:00
방학중: 09:00~18:00

돌봄 유형
정기돌봄
일정 기간 지속 돌봄
일시돌봄
갑작스러운 사유
단기간 돌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상시
(센터 정원 내 모집)

우리 아이 방과후 돌봄, 안심하세요!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상시 모집

대상: 6~12세 아동(초등학생, 소득 무관)
정기·일시돌봄 모두 가능
방과 후 안전한 돌봄부터 간식·놀이까지!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정원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칠성로길 1, 4층 (일도1동)	755-8472	20
신산마루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신산로 8길 16 (일도2동)	721-0011	20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낙동로 24 (삼도2동)	725-8713	20
푸른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장로로 1길 36, 2층 (이도2동)	752-1006	30
가정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동대길 25 (고인동)	757-1739	41
도련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도련 6길 17-3, C동 201호(도련1동)	724-2025	20

문의: 각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2